

이선희 (李善浩, Lee Sun-ho) 약력



본 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 생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년월일 : 1939년 10월 11일
현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 직 책 : 코리아타임즈 자유기고가, 사단법인 韓美協會 부회장 겸 賞勳위원장
東泉테라스(부동산임대)대표, 사회복지법인 世英財團 이사

교육과정

1964. 02. 26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66. 08. 12 미국 Boston College 대학원 경제학과(석사과정) 졸업

주요경력

1970 - 1974 필리핀 Manila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문역
1976 - 1999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2000 - 2002 大新통상(주) 대표이사사장
1967 - 현재 일간영자지 The Korea Times 칼럼니스트(6인 위원회 옴부즈만,
2006-2015, 자유기고가)

상훈

1984. 11. 30. 수출유공 산업 포장 (제21회 수출의 날)

저술

1998. 03. 25. Contributions to "Thoughts of The Times"
Column of The Korea Times from 1967 to 1997



**54th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VIRTUAL, 3-5 MAY 2021

Virtual Events



Learning through virtual ADB events

By Lee Sun-ho

The 54th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was again held virtually on May 3 to 5 (Ref. The Korea Times dated October 21, 2020), and its following events were conducted as adjusted to the Philippine standard time. A series of sessions covered informative topics concerning ADB's support to development across Asia and the Pacific and ADB's consistent engagement with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s well.

Notable were three memorable webinar discussion agenda through streamline by using desk top computer e-mails upon registration and logging-in. They could be narrated as instructive points to be implemented for the future to foster regional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ensuring that no ADB member country would be left behind.

One was the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um on ADB's helping hands for some member countries. The forum shared key findings of its studies in Bangladesh, India, and the Philippines to understand the function and impact of ADB's loans totaling 20 billion dollars in COVID-19 assistance on public expenditure and debt to be encouraging for their own nature.



ASIAN DEVELOPMENT BANK



Patience, Perseverance, and Peace

Another was the problem caused by the air quality. It could have a material impact on sovereign risk throug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ublic finances. It could also raise the cost of state borrowing in ADB's climate-vulnerable countries threatened by unsustainable debt burdens.

A third was the the post COVID-19 regional growth. It was forecast to bounce back, but prospects diverged at the sub-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e gap in manufacturing capacity have widened in recent years such as China, Indi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expanding their productive capacities. The CNBC (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 debate explored the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Asia to leverage its considerable strengths to plan and rebuild wisely for a world by the way to a 'new normal' toward a sustainable and inclusive future.

In tandem, the 2021 ADB webinars provided a digital platform for discussion on raising ambition for a successful outcome to share their perspective on building the momentum for diverse action takings in this second year of the COVID-19 while enabling ADB member countries in their economic recovery out of the pandemic and climate change effects. All events provided on-line participants to align counter-adversity response and recovery strategies with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provided insights for the way looking forward. 끝

The writer (kexim2@unitel.co.kr) is a freelance columnist living in Seoul.

The 54th Annual Meeting

ADBAnnualMeeting

<번역문>

ADB 웨비나 행사에서 얻은 교훈



지난 5월3일부터 5일까지 마닐라 업무시간에 맞춰 비대면 영상으로 제54차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코리아타임스 2020년 10월 21일자 8쪽 오피니언란) 개최와 병행하여 진행된 비대면 세미나 (웨비나: webinar) 에서는 ADB의 아시아/태평양 개발지원 및 ADB의 지역협력 및 통합에 대한 일관된 참여와 관련된 정보들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등록 및 로그인시 데스크탑 컴퓨터 이메일을 이용하였고 기억에 남는 세가지 웨비나 토론 의제에 주목을 했습니다. ADB회원국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에 구현해야 할 교훈들을 요점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부 회원국을 위한 ADB의 손길에 관한 NGO (비정부기구) 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은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에서 실시한 결과를 공유하여 ADB의 COVID-19 지원으로 총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이 공공지출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기의 질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주권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불가능한 부채부담으로 위협받는 ADB의 기후취약국가에서 국가차입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VID-19 이후 지역성장 이었습니다.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군소지역 및 국가수준에서 전망이 달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도 및 기타 동아시아국가에서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등 제조능력의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CNBC (소비뉴스사업체널) 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향한 방안으로 세계인류를 위해 현명하게 계획하고 재건하기 위해 상당한 강점을 활용하여 아시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ADB 웨비나는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야망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번 COVID-19 2차연도에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모멘텀을 구축하는데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ADB회원국의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염병과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모든 이벤트는 온라인 참가자들에게 역경 대 대응 및 회복 전략을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SDGs)의 달성과 일치시키고 미래를 향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글쓴이 : 李善浩, 서울거주 자유기고가, 2021년 05월 31일 월요일 작성>

